

歸國報告(通堂)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학 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보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2012년 9월 3일

츠도 आयुमी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개발 센터
2012년도 여름 개인파견:PD

연구 주제

학벌 형성으로 보는 식민지 의료위생인사 상황

파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파견 기간

2012년 8월 6일 출발 8월 31일 귀국 체재기간 26일

주요 연구성과

(1)연구계획

한반도 유일의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생의 졸업 후 동향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의료계에서 「학벌(學閥)」이 가졌던 의의 및 기능을 고찰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경성제국대학과의 비교를 위해 내지(內地)의 제국대학 의학부 및 의과대학(의학전문학교) 등과 같은 의학교 졸업생들의 조선 진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①도립의원(=지방공립의원)의 인사이동 상황, ②경성제대에서 의학박사학위 취득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총독부관보』·『조선총독부급 소속관서직원록』을 이용하여 기초정보를 DB화하고 그 이동 실태를 밝힌다.

②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성제국대학의 사실상의 후신인 서울대학교 소장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조사하고, 논문구성 및 청구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2) 연구성과

①1910년부터 1942년까지 33년 간의 도립의원(대한제국기에 설치된 자혜의원을 전신으로 한다. 1925년부터 칙령 제86호로 공포된 조선도립의원관제(朝鮮道立醫院官制)에 의해 도립의원이 되었다)에 대해 원장·의관 클래스부터 촉탁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이동 상황을 데이터화하였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통치기 거의 전 기간에 걸친 공립의원인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지방의 공립의료기관의 확충(출장소나 분원의 의원 승격, 의원 신설에 의한 병원 수 증가 및 인원배치)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②서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성제대 의학부의 박사논문 총계 271 권을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경성제대는 한반도 유일의 대학=학위수여기관이었기 때문에, 박사논문에 관한 정보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고찰하고자 할 때 하나의 실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모든 자료를 전자복사할 예정이었지만, 2012년 7월 도서관규정 변경으로 자료복사는 불허되었기 때문에, 사진촬영은 최소한으로 하고(촬영 데이터 소지도 불가), 각각의 논문에 대해 하나하나 메모를 작성했다.

(3) 향후 연구 전망

상기 작업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운영 실태를 해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의 조선총독부 위생행정의 실시 상황을 밝히기 위해 기초적이고 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제국 일본」이 어떻게 위생행정을 실시했는가라는 식민지통치정책 문제와 함께, 제국 일본의 판도 확대(식민지 획득)이 내지의 의학교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문제, 즉 의학교육사와 식민지연구사의 문제들이 시야에 들어와 새로운 연구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조선뿐만 아니라 내지 의학교의 졸업생 동향도 시야에 넣어 연구를 진척시키고자 하며, 우선은 2012년 12월에 근현대동북아시아지역사연구회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할 예정이다.